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3년 12월 26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폭설에 사고 속출... 농작물 피해 우려-3면	기술지원조정과	제민일보
○	폭설과 한파에 월동채소 언 피해 확산 농가 ‘비상’ -2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대설 한파에 월동작물 언 피해-1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대설·한파 수일째 지속... 농작물 ‘비상’ -1면	기술지원조정과	한라일보
○	주간농업농촌소식-2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농업농촌정보-11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제민일보: 2023년 12월 26일)

○ 폭설에 사고 속출... 농작물 피해 우려-3면

폭설에 사고 속출...농작물 피해 우려

지난 20~22일 48건 신고 접수
눈길 고립·충돌·낙상 잇따라
월동채소 등 언피해 농가 울상

제주지역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폭설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했다.

25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대설특보가 내려진 지난 20일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모두 4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소방력 184명이 투입되고 장비 63대가 동원됐다.

세부적으로 인명구조 2건·2명, 구급 이송 29건·34명, 안전조치 17건 등이다.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고 고립되는가 하면 차량간 충돌사고와 함께 도로가 얼며 낙상 사고도 잇따른 것이다.

또한 급변풍특보가 내려진 제주국제공항은 활주로 제설 작업으로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되면서 체류객들의 발이 묶이기도 했다.

현재는 대설특보가 전면 해제되면서 폭설로 마비됐던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운항이 정상화됐다.

앞서 제주국제공항은 23일 오전 7시10분 김포행 비행기를 시작으로 항공기 운항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빠른 체류객 해소를 위해 항공

사들이 준비한 임시편도 투입됐다.

다만 일부 지방공항 악기상으로 인해 결항편이 재차 생기면서 이들 지역으로 가는 체류객들은 예약이 취소되고 다른 지역 우회편을 알아보는 등 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이번 한파로 무, 양배추 등 월동채소와 미 수확 노지감귤, 무가온 시설 감귤류 등 농작물 ‘언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대설에 따른 한파가 종료되는 대로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피해 현장 복구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설·한파·강풍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철저히 선별 수확해 출하해야 한다”며 “겨울 추위에 농작물이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수세 회복을 위한 영양제 엽면 시비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파는 25일까지 이어지다 26일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오늘(26일)부터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고 예보했다. 26일 아침최저기온은 2~6도(평년 3~5도), 낮최고기온은 12~13도(평년 10~12도)가 되겠으며 27일 아침최저기온은 6~8도(평년 3~5도), 낮최고기온은 13~14도(평년 10~12도)가 되겠다.

12.26.
제민일보3

(제주매일: 2023년 12월 26일)

○ 폭설과 한파에 월동채소 언 피해 확산 농가 ‘비상’ -2면

폭설과 한파에 월동채소 언 피해 확산 농가 ‘비상’

선별 작업 철저 출하 당부...수세 회복 능력 총력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 재개됐지만 산지는 대설특보

23일 자정을 기해 제주지역 대설특보가 전면 해제되면서 폭설로 마비됐던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운항도 재개됐다. 지난 20일부터 제주도 곳곳에 내린 대설로 인해 제주국제공항이 한시적으로 폐쇄되는 등 온상이 멈춰서면서 제주를 오가는 승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지만 23일 오전 7시10분 김포행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항을 재개했다.

그러나 24일에도 제주도 산지와 북부 중산간 도로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돼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25일까지 한라산 입산도 전면 통제됐다.

그동안 내린 폭설과 강풍으로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만 48건이다.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는가 하면 고립되기도 했다. 차량간 충돌사고와 미끄러진 차량에 보행자가 치이기도 했다. 또한 보행자가 눈길에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도 속출했다.

도내 일부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21일에 이어 22일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교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변경하거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내린 폭설과 한파 영향으로 무와 양배추 등 월동채소와 미수확 노지감귤, 무가온 시설감귤류 언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20일 밤 9시부터 제주 동부와 남부 지역의 영하 기온이 23일 아침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월동채소는 언 피해 발생 후 저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제주시 구좌읍 일동무 농가에서 한파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온이 지속되자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언 피해는 영하 온도 지속시간에 따라 회복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후의 기상과 피해 정도에 따라 요소 또는 4종복비 엽면시비로 피해 최소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문선희 제주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

조정과장은 “대설·한파·강풍 등에 의해 피해당한 농작물은 철저하게 선별 수확해 출하해야 한다”며 “겨울 추위에 농작물이 연약하기 때문에 수세회복을 위한 영양제 엽면시비로 피해 최소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26. 제주매일 2면

(제주일보: 2023년 12월 26일)

○ 대설 한파에 월동작물 언 피해-1면

대설 한파에 월동작물 언 피해

무·당근·양배추 재배지에 폭설...작황에 악영향 우려

노지감귤은 낙과 현상까지 발생

일부 농가 농작물보험 피해 신청

최근 연이은 대설과 한파에 수확을 앞둔 월동작물의 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23일 무·당근·양배추와 같은 겨울채소 주산지인 성산·표선·송당·애월 등지에 폭설이 내려 작황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수확을 못 끝낸 노지감귤의 경우 20도가 넘는 고온에 한파와 폭설까지 날씨가 오락가락하면서 궤가 떨어지는 현상까지 발생해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 기준 월동무 50농지(27.9ha), 브로콜리 4농지(1.7ha), 감귤 19농지(16.0ha), 원예시설 11단지가 겨울 한



언 피해 입은 월동무.

파와 냉해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재배보험 피해 신청에 나섰다. 월동채소는 언 피해 발생 후 저온이 지속되면 피해가 확대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다. 언 피해는 영하 온도 지속시간에 따라 회복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후의 기상과 피해 정도에 따라 요소 또는 4종복비 엽면시비로 피해 최소화해야 한다.

문선희 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장은 “대설·한파·강풍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철저히 선별 수확해 출하해야 한다”고 말하며

“겨울 추위에 농작물이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수세 회복을 위한 영양제 엽면시비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1일 대설 등 기상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농업재해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농업시설물 사전 점검, 상시 피해 상황 현장 모니터링 및 농가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피해 신고는 재난 종료 후 읍면동으로 10일 이내에 하면 된다.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22일 대설특보에 따른 한파로 농작물 언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구좌지역 월동무재배 현장을 방문해 “농작물 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재배 복구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26. 제주일보 1

(한라일보: 2023년 12월 26일)

○ 대설·한파 수일째 지속... 농작물 ‘비상’ -1면

대설·한파 수일째 지속... 농작물 ‘비상’

영하권 날씨 이어지며 중산간엔 잔설 여전
무·양배추·노지감귤 등 ‘언 피해’ 관리해야

사흘째 제주지역을 강타한 대설과 한파로 월동무, 브로콜리 등 월동 채소와 감귤류 등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5일 제주시 봉개동에서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잇는 번영로 구간을 살펴본 결과, 동지역에는 잔설만 남아 있을 뿐 대부분의 눈이 녹은 상태다. 다만 일부 노지감귤 수확이 늦어지면서 부패와 발생 등의 우려가 높아 조속한 시일 내 수확해 유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감귤나무에 쌓였던 눈은 모두 녹아내린 상태다.

조천읍과 표선면 일대의 중산간에는 도로 갓길마다 눈이 쌓여 있고, 특히 월동무가 심어진 밭에도 제법 눈이 많이 남아 있다. 성읍리 소재 월동무 밭에 직접 들어갔더니, 아직도 20cm 이상의 눈이 쌓여 무청 일부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이번 대설과 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2일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쯤부터 제주 동부와 남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후 23일 오전까지 영하의 날씨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무, 양

배추 등 월동채소와 미수확 노지 감귤, 무가온 시설감귤류 언 피해 등이 우려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 회복을 위한 사후관리 요령을 발표했다.

월동채소는 언 피해 발생 후 저온이 지속됨에 따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언 피해는 영하권 온도의 지속시간에 따라 회복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후의 기상과 피해 정도에 따라 요소 또는 4종복비 엽면 시비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수확하지 못한 감귤은 열매껍질이 얼거나 연약해져 저장력이 낮아지므로 한파가 풀리고 맑은 날이 2~3일 경과된 후 수확해 철저한 예조 후 출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유통을 마쳐야 한다. 수세가 약한 과원은 맑은 날에 요소 0.2~0.3% 액을 2~3회 엽면시비하고, 수확 후 저장 중인 노지감귤은 적정 온·습도(3~5℃, 86% 내외) 유지와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또 만감류, 엽채류 등의 무가온하우스에도 언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난방기를 가동해 하우스 내부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대설·한

파·강풍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철저히 선별 수확해 출하해야 한다”며 “추위로 농작물이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수세회복을 위한 영양제 엽면시비로 피해 최소화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는 지난 21일 대설 등 기상특보 발효에 따라 농업재해 상황실을 운영하며 농업시설물 사전 점검, 상시 피해상황 현장 모니터링 및 농가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한파가 종료되는 대로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현장 복구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피해 신고는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백금탁·김도영기자



12.26.
한라일보 1

지난 20-23일 제주 전역에 한파 날씨와 함께 많은 눈이 내렸는데,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대 월동무 밭 등 중산간 일대에는 25일 오후까지도 잔설이 남아 농작물의 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매일: 2023년 12월 26일)

○ 주간농업농촌소식-2면

주간농업농촌소식

주간농업농촌소식 2023-52호(2023.12.26.)

미래 지향적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기반 구축

대설·한파 후 농작물 중점관리사항

■ 노지채소, 발작물

○ 토양 과습에 의한 습해가 우려되므로 물 뺄 도랑 정비

○ 언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철저한 선별 수확 후 출하

○ 채소류 언 피해는 영하 온도 지속시간에 따라 회복 가능 여부가 결정됨

○ 날씨가 풀린 후 기상과 피해 정도에 따라 맑은 날 엽면시비

■ 노지감귤

○ 과피가 얼거나 연약해져 부피과 또는 과사가 발생하고 저장력이 낮아짐

○ 날씨가 풀린 후 맑은 날 요소 엽면시비

○ 저장 중인 감귤은 적정 온·습도(3~5℃, 85% 내외)를 유지하고 아침에 주기적인 환기 실시

■ 시설작물

○ 일조 부족 및 과습에 의한 병 발생 우려되므로 적용 약제 살포

※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실시: 2024. 1. 3. ~ 1. 31.

○ 1. 3.(수) 10:00 가시리사무소: 노지감귤, 만감류

○ 1. 4.(목) 10:00 서부센터 교육관: 마늘 기계화, 만감류

14:00 서부센터 교육관: 마늘 기계화, 노지감귤

○ 1. 5.(금) 10:00 하례1리사무소: 노지감귤

10:00 성읍2리사무소: 더덕

10:00 귀덕1리사무소: 양채류, 쪽파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81~3)

2.26.
제주매일 2

(제주일보: 2023년 12월 26일)

○ 농업농촌정보-11면

■ 농업농촌정보

농작물 중점 관리 사항

▲노지채소, 발작물 △토양 과습에 의한 습해가 우려되므로 물 뺄 도랑 정비 △언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철저한 선별 수확 후 출하 △채소류 언 피해는 영하 온도 지속시간에 따라 회복 가능 여부가 결정됨 △날씨가 풀린 후 기상과 피해 정도에 따라 맑은 날 엽면시비

▲시설작물 △일조 부족 및 과습에 의한 병 발생 우려되므로 적용 약제 살포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실시=2024년 1월 3일(수)~1월 31일(수) △1월 3일(수)=오전 10시, 가시리사무소=노지감귤, 만감류 △1월 4일(목)=오전 10시, 서부센터 교육관=마늘 기계화, 만감류/ 오후 2시, 서부센터 교육관=마늘 기계화, 노지감귤 △1월 5일(금)=오전 10시, 하례1리사무소=노지감귤/ 오전 10시, 성읍2리사무소=더덕/ 오전 10시, 귀덕1리사무소=양채류, 쪽파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3).

12.26.
제주일보 11